

SOCIETY

2025년 3월 6일 목요일

“민원·갈등 예방”... 주택관리 상담센터 호응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 서구, 광주 자치구 최초 시행

광주 서구가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서구는 3월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 대해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업무 공백 방지와 대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통해 조직 내 협력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이를 대신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직자는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서구가 운영한 조직문화 개선 모임인 ‘편은워크(Fun-on-Work)’에서 혁신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육아시간 동안 대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격려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북구, 2018년부터 도입...전문가 6명 맞춤 서비스 제공
광산구, 1분기 수요조사 실시...동구, 추경안 편성 추진

광주지역 주택관리상담센터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광주 북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등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운영된 주택관리상담센터는 입주민 간의 각종 분쟁과 갈등을 정확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단지 내 분쟁, 회계,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주택관리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변호사 2명이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북구청 별관 2층 공동주택과 주택관리 상담센터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운영 12회를 비롯해 민원·갈등 예방 지원사업 10회, 찾아가는 맞춤형 동대표 교육 16회, 일반상담 1027회가 이뤄졌다.

상담 내용은 다양했다. 아파트 담장 보수·승강기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에 따른 재투표 관련 상담, 관리사무소 이사 비용 지출·경비율 급여 지급 등이었다. 주택관

리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보수 계획, 사업자 선정 등 주택관리 실무를 안내했다.

실제로 지난해 북구 한 아파트는 동 대표 출마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자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주민 A씨는 기존 동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동 대표에 출마하고자 했지만,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란 규정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았다.

문구에 이의를 제기한 A씨는 센터를 찾아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조사위원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중재, 동 대표 출마 기능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3년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비용에 대한 분쟁

이 발생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로회 또는 부녀회가 주거환경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경로회는 관리대로 사업비를 달라며 민원을 제기,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조사위원이 경로회 측을 대상으로 교부신청서 작성법, 회계 처리법 정산에 대한 법률 등을 안내해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북구의 우수사례는 타 자치구의 센터 개설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광산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지난해 7월 관련 논의를 진행, 지난 달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가 설치됐다. 이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자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상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동구는 상반기 추경안 편성을 계획하고 있고, 남구는 외부 전문 인력으로 계약직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아파트 생활의 특성상 사소한 문제가 큰 오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민원 해결로 건전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공공기관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대”라며 “주택관리상담센터가 주민 간 갈등 해소와 화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교육청, 교내 현장체험학습 한시 허용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6월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조례를 개정해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인다.

시교육청은 5일 분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21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집행범위를 교내 현장체험학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생들은 교외는 물론 강사가 학교로 찾아와 진행되는 체험활동 등 교내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su@



봄을 재촉하는 비 광주·전남지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실금기 | 스탠드 공기청정실금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공기청정실금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광산구 “무인 주문 호출 어려워 마세요”

무료 정보화 사업 확대
집합·방문교육 병행 추진
신중년 프로그램 운영도

광주 광산구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청사 6층 전산교육장에서 맞춤형 무료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진행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은 교령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5인 이상만 신청하면 주 2회(화 목요일) 원하는 장소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

스마트폰 활용 기초과정부터 영상통화, 모바일 앱 활용 택시 호출 등 응용 과정, 누리소통망(SNS) 활용, 콘텐츠 영상 편집을 비롯해 원하는 앱에 대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앱 집중탐구 과정 등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올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합교육과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집합교육은 광산구청 6층 전산교육장, 첨단전산교육장(첨단종합사회복지관 4층) 2곳에서 진행됐다.

이중 구청 전산교육장 집합교육은



5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청사 6층 전산교육장에서 열린 맞춤형 무료 주민 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디지털 장비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

교육과정은 각종 문서 작성 등 컴퓨터 기초사용법을 비롯해 유튜브 창 제작자(크리에이터) 양성, 무인기(키오스크) 체험 및 활용까지 폭넓게 진행됐다. 특히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보편화된 무인기 사용의 부담을 덜도록 이동형 무인기를 활용해 주문, 결제, 영수증 출력에 해보는 실습 교육도 이뤄져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은 연말까지 운영한다.

집합교육은 광산구 누리집, 전화(062-960-8261)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전화(062-960-8263)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이달부터 4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초(스마트폰 및 생활 앱 교육 등) △디지털 심화(영상) △스마트폰 지도사 양성 등 다

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농촌지역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는 방문교육도 병행한다.

올해 교육에는 지난해 광산구 스마트폰 지도사 양성 과정 수료생 22명이 보조강사로 참여한다.

신청 접수는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링크(https://edu.gwangsan.go.kr), 지역 복지관 방문 및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프로그램당 정원은 10~15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복지관(행복나루, 더불어민주당, 첨단, 하남, 송광, 행복드림)이나 광산구 평생학습팀(062-960-8284)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빨라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소외와 격차는 해소하고, 혜택과 편리함을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도록 맞춤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청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